



東 · 亞 · 文 · 化 · 44

## 穎州·揚州 시기의 東坡詞

柳 種 睦



# 穎州揚州 시기의 東坡詞

柳 種 睦\*

## I

龍圖閣學士知杭州軍州事 즉 杭州知州로서 元祐 4년(1089) 7월부터 1년 반 정도 杭州에 머문 蘇東坡(1036-1101, 본명 蘇軾)는 원우 6년(1091) 2월에 翰林學士承旨에 임명됨으로써 3월 초에 杭州를 떠나 開封으로 들어갔다. 그는 浙西 지방의 농촌 실정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매우 수고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사단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시 조정은 劉摯(1030-1097)·劉安世·王巖叟 등의 朔黨 인사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이에 우두머리를 잃고 갈 데가 없어진 朱光庭·賈易·楊畏 등 洛黨의 잔재들이 朔黨에 빌붙어 개인적인 영달을 꾀하는 형국이었었는데, 朔黨의 영도자 유지의 힘을 빌어 侍御史가 된 가이가 사사건건 소동파를 모함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던 소동파는 옛날에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는 程頤(1033-1107)의 주장에 대해 자주 비판을

---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했었는데 정이의 일당인 가이가 삭당의 힘을 믿고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것이었다. 소동파는 더 이상 이런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몇 차례나 외직을 자청하는 상소문을 올렸지만 유지 등의 삭당인사들에게 전횡되고 있는 정국을 바로잡아야만 했던 太皇太后로서는 소동파의 청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소동파를 모함하는 사람은 가이 일당만이 아니었다. 소동파는 항주에서 개봉으로 갈 때 자기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알게 된 절서지방 농민들의 수재 상황을 태황태후에게 보고하고 그들을 구제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렸었는데 태황태후가 소동파의 건의를 받아들여려 하자 가이가 楊畏·安鼎 등과 연명으로 상소문을 올려 소동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우겨댔다. 난처해진 소동파는 御史中丞 趙君錫에게 도움을 청했다. 조군석은 2년 전에 소동파가 항주지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가 조정을 떠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주청하기도 했고 소동파의 문하생인 秦觀을 秘書省正字로 추천해주기도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조군석은 이미 소동파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가 그동안 소동파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태황태후가 소동파를 지극히 총애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소동파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안 이상 계속적으로 그를 지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 기회에 소동파를 팔아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소동파가 어사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모함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조정에서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한 결과 원우 6년(1091) 8월 마침내 소동파와 가이를 함께 외직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소동파의 직함은 龍圖閣學士左朝奉郎知潁州軍州事였다. 언제 대역죄를 뒤집어쓸지 모르는 살벌한 조정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소

동파의 심정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그에게 정말로 반가운 것이었다. 더구나 潁州(지금의 안휘성 阜陽)는 일찍이 북송 초의 명재상으로 유명 詞人이기도 한 晁殊(991-1055)와 소동파의 스승으로 북송 문단의 영수였던 歐陽修(1007-1072) 같은 대문호들이 지주를 지낸 곳이었다. 특히 구양수의 경우 그곳의 산천과 풍토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만년을 보내기까지 했다. 자신이 외직으로 나가기를 그토록 염원한 데다 금상첨화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을 영주의 지주로 나가게 되어서 소동파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소동파는 원우 6년(1091) 8월에 영주에 도착하여 6개월 동안 머문 뒤 원우 7년(1092) 2월에 다시 龍圖閣學士充淮南東路兵馬鈐轄知揚州軍州事 즉 양주지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아 揚州(지금의 강소성 양주)로 옮겼다. 양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소동파는 마음이 상당히 들떴었다. 양주 역시 구양수가 일찍이 지주를 지낸 곳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남아 있을 스승의 자취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양주로의 이동이 소동파를 들뜨게 한 보다 큰 요인이 하나 있었다. 양주는 長江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길로 죽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고향인 眉山이 있는바, 당시 소동파는 일단 양주로 갔다가 거기서 벼슬을 그만두고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옛날 開封의 懷遠驛에서 制科를 준비할 때 동생과 함께 꾸었던 ‘對床夜雨’의 꿈을 이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상야우’의 꿈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양주에 조금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꿈으로 끝나고 원우 7년(1092) 8월에 그는 다시 兵部尙書兼侍讀에 임명되어 9월 초에 바로 양주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潁州知州와 揚州知州로 재임한 원우 6년(1091) 8월부터 원우 7년(1092) 9월까지의 약 1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두 고을에서

지방관 생활을 한 만큼, 그의 심경이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초연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그의 사가 어느 때보다 초탈하고 清麗曠達한 풍격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 시기의 사 작품 12수<sup>1)</sup>를 대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

제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詞는 크게 自然詞와 人情詞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자연사란 인간적인 감정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고, 인정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갖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자연사는 세분하면 미시적 관점에서 어느 한 가지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詠物詞와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작은 자연물이 어우러져서 연출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敍景詞가 있다. 인정사는 세분하면 이성간의 야릇한 감정을 노래한 艷情詞, 만나는 기쁨이나 헤어지는 아쉬움 및 헤어진 뒤의 그리움 따위를 노래한 交遊詞, 계절의 변화나 명절의 도래를 계기로 발생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개를 노래한 節序詞, 유유자적하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한 田園詞, 세속적 名利의 무가치성을 설파하며 超越意志나 歸隱意志를 노래한 隱逸詞, 적에 대한 분개심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국충정을 노래한 愛國詞,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노래한 社會詞 등 여러 가지

1) 이 논문에서는 曹樹銘 校編 《蘇東坡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를 저본으로 하며 작품의 編년도 曹氏의 설을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潁州·揚州 時期 약 1년에 해당하는 사작품 12수는 이 책의 편년에 근거하여 선정한 것이다.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제재면에서 이 시기 東坡詞에는 自然詞 5수와 人情詞 7수가 있으며 자연사에는 다시 영물사 3수와 서경사 2수가 있다. 다음은 거문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영물사이다.

**減字木蘭花**

空牀響琢. 花上春禽冰上雹. 醉夢尊前. 驚起湖風入坐寒. 轉關鑊索. 春水流  
絃霜入撥. 月墮更闌. 更請宮高奏獨彈.

거문고를 집어내려 옥 쪼는 소리를 울리니  
꽃 위를 달리는 봄새 소리요 얼음 위에 내리는 우박이네.  
술동이 앞에서 술에 취해 꿈을 꾸다가  
놀라 깨니 호숫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네.

<轉關六幺>와 <鑊索梁州> 이 두 곡조는  
봄물이 현으로 흘러들고 서리가 채로 날아드는 격  
달은 지고 물시계의 물은 다 돼 가는데  
다시 한 번 낭랑하게 독주해주길 청하네.

쪼르르 쪼르르 날렵한 새가 꽃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 후두둑 후두둑 얼음 위에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 조르르 조르르 봄철의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사그락 사그락 차가운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는 소리 등에 비유함으로써 맑고 낭랑한 거문고 소리를 참신하고 실감나게 그려냈다. 이 사는 객관적 관점에서 거문고 소리를 묘사했을 뿐 자신의 감정은 배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揚州에는 매년 봄에 작약꽃 10여 만 가지를 모아놓고 감상하는 萬花會라는 행사가 있었다. 낭만과 운치가 넘치는 행사로 양주 사람들이 너도나도 즐기는 행사였지만, 이로 인하여 곳곳에 있는 화원이 황폐해

질 뿐만 아니라 그곳 관리들이 이 행사를 기화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식은 양주지주로 부임하자마자 이 만화회부터 폐지했다.<sup>2)</sup> 그러나 만화회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가 작약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浣溪沙

芍藥櫻桃兩鬪新. 名園高會送芳辰. 洛陽初夏廣陵春. 紅玉半開菩薩面, 丹砂穠點柳枝脣. 尊前還有箇中人.

신선함을 다투는 작약과 앵두  
멋진 정원에서 근사한 잔치로 좋은 시절 보내는 건  
낙양의 초여름과 광릉의 봄철이네.

홍옥이 반쯤 열린 모습은 보살님의 얼굴이요  
단사를 길게 찍은 모습은 柳枝의 입술인데  
술동이 앞에는 또 그에 필적할 아리따운 사람이 있네.

역시 廣陵 즉 양주의 명물인 작약꽃과 앵두의 아름다운 자태를 반쯤 열린 홍옥, 보살의 얼굴, 젓가락에 묻혀서 찍은 丹砂, 기녀 柳枝의 새 빨간 입술 등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그렸을 뿐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은 담담한 작품이다.

滅字木蘭花——五月二十四日，會於无咎之隨齋。主人汲泉置大盆中，漬白芙蓉，坐客憐然，無復有病暑意——

回風落景. 散亂東牆疏竹影. 滿座清微. 入袖寒泉不濕衣. 夢回酒醒. 百尺飛瀾鳴碧井. 雪灑冰麾. 散落佳人白玉肌.

——5월 24일 조무구의 수재에서 모였는데 주인이 샘물을 길어 큰

2) 柳種睦,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267쪽.

동이에 붓고 거기에 白芙蓉을 담가 놓으니 좌객들이 갑자기 다시는  
더위를 못 견뎌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해거름 무렵에 회오리바람 불어와  
영성한 대 그림자 동쪽 담에 어지럽다.  
은 좌중이 시원하게  
찬 샘물이 옷도 안 적시고 소매를 파고 든다.

꿈도 깨고 술도 깨니  
백 지나 되는 파도가 우물 속을 울린다.  
하얀 눈이 얼어붙은 깃발 위에 뿌리고  
훅날려서 고운 이의 백옥 살결에 떨어진다.

揚州知州로 재임 중이던 원우 7년(1092)의 어느 한여름날 蘇門四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揚州通判으로 재임 중이던 晁補之의 집에서 샘물을 길어 동이에 부어놓고 거기에 白芙蓉을 담가 더위를 식힌 일을 서술한 것이니 보통의 영물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白芙蓉을 노래한 영물사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작품이다.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담장에 대나무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해거름 같고, 소매에 묻은 찬 물이 살결에 닿는 것 같고, 퐁퐁 언 깃발에 눈발이 치는 것 같고, 미인의 하얀 살결에 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시원한 공기가 읽는 이의 여름을 다 시원하게 해주는 듯 청량한 작품이다.

영물사는 개인적 감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때문에 작품이 대체로 淸麗曠達한 편인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 동파사 중의 영물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묘사의 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서경사 역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는 영물사와 마찬가지로이다.

滅字木蘭花——二月十五日夜，與趙德麟小酌聚星堂——

春庭月午. 搖蕩香醪光欲舞. 步轉迴廊. 半落梅花婉婉香. 輕煙薄霧. 總是少年行樂處. 不似秋光. 只與離人照斷腸.

—2월 15일 밤에 취성당에서 조덕린과 함께 술을 조금 마시고—

따뜻한 봄 뜨락에 높이 솟은 달빛이  
출렁출렁 막걸리 잔에서 춤을 추려 하는구나.  
낭하를 빙빙 돌며 어슬렁거리고 있노라니  
반쯤 진 매화가 은은히 향을 풍기는구나.

얽은 안개 아스라이 뒤덮인 이곳  
곳곳이 젊은이들 찾아와서 노는 곳  
싸늘한 가을 달이 이별한 사람에게 비쳐  
애간장이나 끊는 것과는 같지 않구나.

趙令時的 《侯鯖錄》에 이 사의 창작동기가 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원우 7년(1092) 정월 동파선생이 여음주(즉 潁州, 지금의 안휘성 阜陽)에 있을 때 대청 앞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거기에 달빛이 흰하게 비쳤다. 선생의 부인 왕씨가 “봄철의 달빛이 가을철의 달빛보다 낫습니다. 가을철의 달빛은 사람을 슬프게 하는데 봄철의 달빛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요. 왜 조덕린 같은 사람들을 불러 이 꽃 밑에서 한잔 하시지 않으십니까?”라고 했다. 선생이 크게 기뻐하며 “당신이 시를 잘 짓는 줄을 몰랐구려. 이 말씀은 정말로 시인의 말이구려”라고 하고는 조덕린 등을 불러 두 구양씨<sup>3)</sup>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 말을 써서 <감자목란화> 사를 지었다.<sup>4)</sup>

조영치가 소개한 바와 같이 원우 7년(1092) 2월 15일 밤에 조영치 등과 함께 聚星堂에서 술을 마시면서 보고 느낀 취성당 주변의 그림쳐

3) 歐陽修的 두 아들을 가리킨다. 구양수가 은퇴 후 潁州에서 만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영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4) 元祐七年正月, 東坡先生在汝陰州, 堂前梅花大開, 月色鮮霽. 先生王夫人曰: “春月色勝如秋月色, 秋月色令人悽慘, 春月色令人和悅. 何不召趙德麟輩來, 飲此花下?” 先生大喜曰: “吾不知子能詩耶. 此真詩家語耳.” 遂相召, 與二歐飲. 用是語作<減字木蘭詞>.

럼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하늘 한가운데 흰히 떠 있는 둥그란 보름달이 막걸리 잔에 비쳐 막걸리와 함께 흔들리는 아름다운 광경과 어디선가 날아와 아련히 코를 간질이는 은은한 매화 향이 한덩어리가 되어 훈훈한 느낌을 주는 봄밤의 풍경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회랑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시인 역시 풍경의 일부가 된 듯하다. 그러나 별로 감정의 동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木蘭花令

高平四面開雄壘. 三月風光初覺媚. 園中桃李使君家, 城上亭臺遊客醉. 歌  
翻揚柳金尊沸. 飲散憑闌無限意. 雲深不見玉關遙, 草細山重殘照裏

고평에는 사방에 웅장한 보루  
삼월이 되자 풍광이 비로소 곱게 느껴진다.  
정원에 복사꽃과 지두꽃 핀 태수의 집  
성 위의 정자에서 나그네는 술 취했다.

<楊柳枝> 새 가사 노래하니 금동이에서 술이 부글부글  
술자리 과한 뒤 난간에 기대니 자꾸만 생각이 나건만  
머나먼 옥문관은 구름이 깊어 보이지 않고  
석양 아래 풀은 간들간들 산은 겹겹이 막혔다.

술을 마시며 바라본 高平<sup>5)</sup>의 봄 풍경을 그린 것이다. 하편에 일말의 그리움이 배어 있는 듯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담담한 편이다.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자연사가 비교적 담담하고 초연한 정조를 띠는 데 반하여,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적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인정사는 비교적 격동적이거나 감상적인 정조를 떨 수밖에 없다.

5) 泗州 臨淮郡. 曹樹銘, 앞의 책, 370쪽 참조.

이 시기 동파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人情詞는 다시 交遊詞와 節序詞로 나누어지고, 교유사를 더욱 세분하면 헤어짐의 아쉬움을 토로한 送別詞 3수와 헤어진 뒤의 그리움을 호소한 思念詞 2수가 있다.

青玉案——和賀方回韻，送伯固還吳中——

三年枕上吳中路。遣黃犬·隨君去。若到松江呼小渡。莫驚鴛鴦。四橋盡是，老子經行處。 輞川圖上看春暮。常記高人右丞句。作個歸期天已許。春衫猶是，小蠻針線，曾濕西湖雨。

——하방회의 사에 차운하여 오중으로 돌아가는 소백고를 전송한다

삼 년 동안 배가에 어렸을 오중의 길  
누런 개를 보내어  
그대 따라 가게 하려오  
송강에 이르러 나무에서 뱃사공을 부르거든  
원앙새와 백로를 놀라게 하지 마오  
다리 네 개가 있는 그곳 어느 곳이나  
이 늙은이 늘 다니던 정든 데라오.

망천도에서 봄빛이 저무는 광경을 보면  
왕우승의 시구가 늘 생각나겠군요.  
돌아갈 계획 세우고 하늘이 이미 허락했나니  
봄적삼은 그래도  
소만의 바느질 솜씨이거늘  
그것이 그만 서호의 가랑비에 젖었었지요.

소동파가 항주에 있을 때인 원우 4년(1089)에 그를 찾아간 蘇堅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소동파와 함께 지내다가 원우 7년(1092) 소동파가 揚州를 떠나 개봉으로 돌아갈 무렵에 吳中(지금의 강소성 蘇州)으로 돌아갔다. 이 사는 이때 소견과의 이별을 아쉬워하여 지은 것으로 3년

전부터 함께 지낸 친구와의 작별을 노래한 사지만 그다지 애잔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 비교적 담담한 정조를 지닌 작품이다. 이것은 소동파의 이전 시기 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다음 사는 상당히 애상적인 작풍을 지니고 있다.

生查子——送蘇伯固——

三度別君來, 此別眞遲暮. 白盡老鬢鬚, 明日淮南去.      酒罷月隨人, 淚濕花如霧. 後夜逐君還, 夢繞湖邊路.

——소백고를 보내고——

세 번째로 맞이한 그대와의 헤어짐  
이번에는 참으로 늘그막에 맞았구나.  
수염이란 수염은 모조리 하얗진 채  
내일이면 회남에서 떠나가누나.

술자리가 과하고 달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안개 속에 꽃을 보는 듯  
내 마음은 늦은 밤에 그대 따라 갔다 와서  
꿈 속에 호숫가를 맴도는구나.

3년 동안 함께 지낸 친한 친구와의 이별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소동파의 다른 송별사와 비교하면 너무 애상적인 정조를 띠고 있어서 소동파사답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減字木蘭花——送趙令晦之——

春光亭下. 流水如今何在也. 歲月如梭. 白首相看擬奈何.      故人重見. 世事年來千萬變. 官況闌珊. 慚愧青松守歲寒.

——조희지 현령을 전송하며——

춘광정 밑에  
흘러가던 강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세월이 북 같으니  
백발 되어 만나면 어찌 할까요?

옛 친구를 다시 만날 그때가 되면  
세상사가 몇 년 사이에 바뀌고 또 바뀌어  
벼슬살이 말할 수 없이 썰렁할 테니  
겨울에도 절개 지키는 청송에게 부끄럽겠지요.

친구인 趙祗 縣令을 전송하면서 지은 이 사에는 인생무상에 대한 감각이 진하게 배어 있는 가운데 미래의 벼슬살이에 대한 강한 회의가 담겨 있어서 초연하고 의연하던 이전 시기의 사와는 작풍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다음 작품을 보면 이 시기의 석별의 정이 이전 시기의 작품에 비해 상당히 농도가 진하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臨江仙——送錢穆父——

一別都門三改火，天涯蹋盡紅塵。依然一笑作春溫。無波真古井，有節是秋筠。  
惆悵孤帆連夜發，送行淡月微雲。尊前不用翠眉顰。人生如逆旅，我亦是行人。

——전목보를 보내며——

서울을 떠난 뒤로 해가 세 번 바뀌고  
이곳 저곳 다니며 온갖 風塵 겪었건만  
여전히 웃음 지으며 봄날인 듯 온화한 표정.  
파도가 없음은 정말 오랜 우물이요  
절개가 있음은 가을철의 대나무로군요.

서글프게도 외로운 배 밤을 도와 달리는데

희미한 달과 얽은 구름이 전승을 하겠지요.  
 술자리선 검은 눈썹 찡그릴 것 없대오  
 인생이란 여관 같고  
 나 또한 길 가는 나그네이니까요.

소동파가 杭州知州로 재임 중이던 원우 6년(1091) 봄에 越州知州의 임기를 마치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錢鏐(字 穆父)이 그를 찾아 항주에 들렀다가 떠날 때 지은 이 사에는 인간의 만나고 헤어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인생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바, 송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哲理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전 시기의 소동파 송별사는 대체로 이런 작풍이었다. 潁州·揚州 시기의 사와 비교해 보면 작풍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思念詞는 제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애상적인 정조를 떨 수 밖에 없지만 이 시기의 소동파 사념사는 이전 시기의 사념사에 비하여 애상적인 정조가 훨씬 짙은 것이 특징이다.

木蘭花令 ——次歐公西湖韻——

霜餘已失長淮闊. 空聽潺潺清潁咽. 佳人猶唱醉翁詞, 四十三年如電抹. 草頭  
 秋露流珠滑. 三五盈盈還二八. 與余同是識翁人, 惟有西湖波底月.

——歐陽公의 西湖를 읊은 사에 次韻하여——

공활한 긴 淮河는 서리에 덮여 보이지 않고  
 맑은 潁河의 졸졸거리는 흐느낌만이 들리네.  
 가인은 아직도 취옹의 詞를 부르는데  
 사십삼년 세월이 번개처럼 지나갔네.

가을 이슬은 풀잎 끝에 구슬처럼 구르고  
십오야의 보름달 열댓새도 둥글둥글  
나와 함께 취옹을 아는 이라곤  
오직 서호 물결 밑의 저 달뿐이네.

禮部試에서 자기 형제를 선발해준 스승으로서 일찍이 潁州知州를 지낸 바 있는 歐陽修를 그린 것으로 43년이라는 세월이 번개처럼 후딱 지나가 그 옛날 구양수가 이곳에 살았다는 사실마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감개가 진하게 서려 있다. 그것은 인생무상의 감개일 수도 있고 ‘雪泥鴻爪’<sup>6)</sup>의 감개일 수도 있다.

계절이 바뀌거나 명절을 맞게 되면 새삼스레 세월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시기의 동파사 가운데 重陽節을 맞은 감개를 노래한 節序詞 2수가 있다.

浣溪沙——重九——

珠檜絲杉冷欲霜, 山城歌舞助淒涼. 且餐山色飲湖光. 共挽朱轡留半日, 強  
揉青蕊作重陽. 不知明日爲誰黃.

——중양절——

노송나무 삼나무에 서리가 내릴 듯 쌀렁한 날씨  
산성에서의 노래와 춤이 냉기를 돋구는데  
잠시 산색을 포식하고 호수빛을 마신다.

6) 소동파의 시 <和子由澠池懷舊>에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 老僧已死成新塔, 壞壁無由見舊題. 往日崎嶇還記否, 路長人困蹇驢嘶.(정처 없는 우리 인생 무엇 같을까? 눈발을 배회하는 저 기러기 같으리라. 오며 가며 눈발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만, 날아가 버린 뒤엔 간 곳을 어찌 알라? 노승은 이미 죽어 사리탑이 새로 서고, 절의 벽은 허물어져 글씨가 간데없네. 기구했던 지난 날을 아직 기억하는가? 길이 멀어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치고, 나귀도 절뚝대며 울어댔었네)”라고 했다.

수레 끌고 함께 나와 한나절을 머물며  
푸른 꽃술 억지로 만지며 중앙절 기분을 내보거니와  
내일은 누구를 위해 노랗게 필지 모르겠다.

重陽節을 맞아 야외로 나가 연회를 벌이고 국화를 구경하다가 문득 다시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뒤면 저 국화가 누구의 중앙절을 위해 피어 있을지, 즉 내년의 중앙절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저 꽃을 감상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역시 ‘雪泥鴻爪’의 감개가 배어 있는 사이이다.

浣溪沙

霜鬢眞堪插拒霜. 衰絃危柱作伊涼. 暫時流轉爲風光. 未遣清尊空北海, 莫因長笛賦山陽. 金釵玉腕瀉鵝黃.

부용화를 꽃기에 잘도 어울리는 흰 살쩍  
슬픈 현과 높은 雁柱로 타는 <伊州曲>과 <涼州曲>  
풍광이 하도 좋아 잠시 동안 머무노라.

마알간 술단지를 비워놓지 않았으니  
피리 소리 없어도 술 마시고 노래하라  
금비녀 옥팔뚝이 노란 술을 따르니.

앞의사와 詞牌도 같고 韻字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앞의 韻을 다시 써서 지은 작품일 가능성이 큰바, 중앙절을 쇠기 위해 마련된 연회에서 어느새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이 된 채로 늙어감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덧없고 따라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작품의 정조를 지배하고 있다.

### III

이 시기 동파사의 풍격을 살펴본 결과 自然詞 5수는 비교적 담담하고 청아한 정조를 띠고 있고 人情詞 7수는 상당히 감상적이고 애상적인 정조를 띠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동파사가 절반쯤은 청려광달한 풍격을 지니고 절반쯤은 완약한 풍격을 지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완약사는 애상적인 면이 특히 강하다.

#### 滿江紅——懷子由作——

清潁東流, 愁來送·征鴻去翮. 情亂處·青山白浪, 萬重千疊. 孤負當年林下語,  
對床夜雨聽蕭瑟. 恨此生·長向別離中, 彫華髮. 一尊酒, 黃河側. 無限事,  
從頭說. 相看恍如昨, 許多年月. 衣上舊痕餘苦淚, 眉間喜氣占黃色. 便與君·池  
上覓殘春, 花如雪.

#### ——子由를 생각하며——

물 맑은 潁河는 동으로 흐르는데  
근심 어린 눈으로  
기러기를 보내누나.  
마음이 산란한 곳에  
푸른 산과 흰 파도는  
천 겹 만 겹 쌓였는데  
전원에서 살자던 그때 그 약속 못 지켰구나  
마주 누워 밤빛소리 함께 듣자던 그 약속을.  
한탄스러워라 이내 인생은  
항상 헤어진 가운데  
흰 머리가 빠져가누나.

한 동이 술을 놓고  
 黃河 옆에서  
 한없이 많은 일을  
 마주앉아 얘기했네.  
 서로 쳐다보던 것 어제 일만 같은데  
 수많은 해와 달이 지나갔네.  
 옷 위에 남아 있는 쓰라린 눈물 자국  
 미간에는 기쁨으로 노란색이 드러났네.  
 자네와 함께 연못가에서  
 늦봄을 찾아 다니노라면  
 꽃이 눈처럼 떨어졌었네.

소동파는 동생 蘇轍과 함께 汴河 남쪽에 있는 懷遠驛에서 制科 시험을 준비하던 젊은 시절에 韋應物(737-786?)의 시 <示全眞元常>을 읽고 그 중의 “나는 군수 직을 그만두고 떠났는데, 그대들은 바깥 일에 끌려다니니, 어찌 알리오. 바람 불고 눈 오는 밤에,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잘 수 있을지?”<sup>7)</sup>라는 구절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인 동생 소철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줄곧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얼마 안 있어서 각자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면, 나란히 놓인 침상에 마주보고 누워서 두런두런 옛날 얘기를 나누며 형제의 정을 나눌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형제는 이때 일찌감치 벼슬에서 물러나 오순도순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다. 이른바 ‘對床夜雨’의 약속이었다.

소동파는 이 약속을 이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약속은 쉬이 지켜지지 않았다. 潁州知州로 재임 중이던 원우 7년(1092) 2월에 지은<sup>8)</sup>

7) 余辭郡符去，爾爲外事牽。寧知風雪夜，復此對床眠？

8) 王文誥의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 ‘元祐七年二月’에 “有懷子由作<滿江紅>(자유를 그리워하여 <만강홍>을 지었다)”이라고 했다.

이 사는 동생과 함께 정겹게 지내던 옛날을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워하면서 동생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호소하고 나아가 '대상야우'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동과 형제의 우애는 가히 각별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옛날 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水調歌頭—— 丙辰中秋，歡飲達旦，大醉作此篇，兼懷子由——

明月幾時有，把酒問青天。不知天上宮闕，今夕是何年。我欲乘風歸去，惟恐瓊樓玉宇，高處不勝寒。起舞弄清影，何似在人間。轉朱閣，低綺戶，照無眠。不應有恨，何事長向別時圓。人有悲歡離合，月有陰晴圓缺，此事古難全。但願人長久，千里共嬋娟。

——병진년(1076) 중추에 새벽녘까지 기분 좋게 술을 마셔 크게 취한 채 이것을 짓고 아울러 자유를 생각한다——

명월은 얼마 동안이나 떠 있는지  
술잔을 잡고 푸른 하늘에 물어본다.  
모를레라 천상의 궁궐은  
오늘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를.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어도  
두렵기만 하구나 구슬로 만든 집이  
하도 높은 곳이라 추위를 못 이길까봐.  
일어나 춤추면 그림자도 따라 추니  
어찌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을쏘냐

달은 붉은 누각을 돌아  
비단문에 내려와  
잠 못 드는 이를 비추어 준다.  
달은 원한이 있을 턱도 없는데

무슨 일로 언제나 이별에 때 맞추어 동글어지나?  
 사람에게겐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이 있고  
 달에겐 흐림과 맑음, 동글어짐과 이그러짐이 있는 법  
 이것은 예로부터 온전하기 어려웠네.  
 다만 원하기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리 밖에서나마 고운 달 함께 보기를.

마찬가지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작품이지만 이 사 속의 소동파는 앞에서 본 <滿江紅——懷子由作——> 속의 소동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사 속의 소동파는 원래 月宮에 살던 존재, 그래서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선적인 존재이다.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사에 대하여 이미 달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대하여 지극히 초연하다.

이처럼 그 동안 세속적인 감정을 억제한 채 초연한 모습을 보여왔던 소동파가 潁州·揚州에 이르러 부쩍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따라서 그의 사 역시 그 동안의 풍격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음의 도표를 통하여 소동파 사의 풍격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창 작 시 기	완약사(%)	청광사(%)	호방사(%)
제1차 杭州 시기	65	33	2
密州·徐州 시기	30	65	5
제1차 貶謫 시기	25	65	10
제2차 杭州 시기	8	92	0
潁州·揚州 시기	50	50	0

위의 도표를 보면 소동파의 사는 완약풍격이 점점 적어지고 반대로

청려광달한 풍격이 점점 많아져 사의 창작을 막 시작한 제1차 항주시기 이외에는 줄곧 淸曠風格이 婉約風格을 압도해 오다가 潁州·揚州 시기에 이르러 완약풍격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소동파의 사가 갑작스럽게 풍격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동파는 <滿江紅——懷子由作——>에서 “孤負當年林下語，對床夜雨聽蕭瑟。恨此生·長向別離中，彫華髮(전원에서 살자던 그때 그 약속 못 지켰구나, 마주 누워 밤빛소리 함께 듣자던 그 약속을. 한탄스러워라 이내 인생은, 항상 헤어진 가운데, 흰 머리가 빠져가누나)”이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대상야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달 뒤인 원우 7년(1092) 2월에 다시 양주지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대상야우’의 꿈이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것은 이 무렵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 동생과 마주보고 누워서 오순도순 얘기하다 잠들고 싶은 생각이 부쩍 간절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정치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일 것인바, 조군석처럼 소동파가 권세를 잡을 것 같을 때와 그가 조정에서 밀려날 것 같을 때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소인배들에게 인간적인 환멸을 느낀 것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葉嘉瑩은 李白과 蘇軾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李白을 ‘仙而人者’라고 하고 蘇軾을 ‘人而仙者’라고 했거니와<sup>9)</sup> 이것은 두 사람의 차이점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동파가 ‘人而仙者’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소동파가 본질적으로 사람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신선인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소동파는 아무리 신선이

9) 李一冰의 《蘇東坡新傳》(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5, 1015쪽)에 인용된 《迦陵談詩》의 표현.

되려고 노력해 봐야 궁극적으로 인간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는 과연 태생적으로 다정다감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이는 그 자신이 사에서 스스로 천명한 바였다.<sup>10)</sup> 그리고 그가 평생 꾸고 있었던 ‘대상야우’의 꿈도 사실 신선적인 삶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었다. 그는 그만큼 인간적인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인간적인 정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소동파는 신선으로 취급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에게는 ‘坡仙’이라는 별명도 있었다.<sup>11)</sup> 그것은 그가 그만큼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신선적인 존재로서 초연하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도 더 이상 인위적 신선이 되기에 지쳤던 모양이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감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我欲乘風歸去”<sup>12)</sup>가 자기 본연의 모습이 아니고 虛張聲勢였음을 시인한 모양이다. 그래서 신선적 존재로 살기를 포기하고 원래 타고난 그대로 인간적인 삶으로 복귀한 모양이다.

10) 蘇東坡의 <采桑子——潤州多景樓與孫巨源相遇——> 上片에 “多情多感仍多病，多景樓中。尊酒相逢。樂事回頭一笑空(다정다감한 데다 병마져 많은 이 몸, 다경루에서, 한 동이 술을 놓고 이렇게 서로 만나, 즐겁던 일 돌아보며 공허함에 웃음 짓누나)”이라고 했다.

11) 예를 들면, 南宋 시인 戴復古가 그의 시 <赤壁>에서 “長江醉明月，更憶老坡仙(장강에서 명월에게 술을 따르노라니, 나이 많은 ‘坡仙’이 더욱 그리다)”라고 한 것과, 金代 시인 元好問이 그의 시 <奚官牧馬圖息軒畫>에서 “奚官有知應解笑，世無坡仙誰賞音(해관은 안목이 있으니 틀림없이 웃을 게고, 세상에 ‘坡仙’이 없으니 누가 알아주리오)”이라고 한 것, 元代 시인 劉仁本이 그의 시 <題陸放翁齊安墨迹>에서 “今朝忽睹題詩迹，重憶坡仙舊雪堂(오늘 아침 갑자기 시를 써놓은 글씨를 보니, 다시금 ‘坡仙’의 옛 설당이 그리구나)”라고 한 것, 元代 시인 仇遠이 그의 시 <草蟲圖>에서 “坡仙舊詠只八物，若見此圖心更喜(‘坡仙’의 옛날 시엔 여덟 가지만 읊었으니, 이 그림을 보았다면 마음 더욱 기뻐졌네)”라고 한 것 등이 있다.

12) 蘇東坡, <水調歌頭——丙辰中秋，歡飲達旦，大醉作此篇，兼懷子由——>.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그리하여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지방관으로서, 평소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견지하다가도 명절을 맞거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을 전송하는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문득문득 인간적인 감정이 발동한 모양이다.

필자는 <第二次 杭州時期의 東坡詞><sup>13)</sup>에서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은 물론 세속적인 인정마저도 초월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동파사 가운데는 超越意志나 歸隱意志를 노래한 사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제 그 결론이 좀 성급한 것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IV

소동파가 영주지주와 양주지주로 부임해 간 것은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 편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로 자신이 그토록 간청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그는 심경이 매우 담담하고 초연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그의 사가 어느 때보다도 초탈하고 淸麗曠達한 풍격을 지닐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이 시기의 동파사를 살펴본 결과 제재면에서 詠物詞가 3수, 敍景詞가 2수, 送別詞가 3수, 思念詞가 2수, 節序詞가 2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비교적 인간적 감정이 배제된 편인 自然詞가 5수이고 상대적으로 인간적 감정이 많이 개입된 편인 人情詞가 7수였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풍격면에 있어서는 婉約詞와 淸曠詞가 각각 6수로 절반씩이었

13)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제31집(1999년 5월), 124쪽.

다. 이는 淸麗曠達한 작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결과이다.

그 동안 점점 커져오던 淸麗曠達한 풍격의 비중이 이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작아진 것은 아마 지금까지는 자신이 신선의 세계에 살던 존재로 언젠가는 “乘風歸去”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신선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으나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기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은 부단한 노력에 의해 표면상으로는 세속을 초월한 듯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사에도 淸麗曠達한 작품이 많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포기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대상야우’를 갈망하는 본연의 인간적 모습에 충실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삶도 사실은 세속적인 名利에 대해 초연했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바로 신선의 삶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던바, 이 시기에 이르러 그의 태도가 도가적인 것에서 유가적인 것으로 본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부터 시종일관 꾸어 온 ‘대상야우’의 꿈 역시 도가적 思惟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유가적 사유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창작시기별로 소동파 사의 내용적 특징을 연구해온 필자는 潁州·揚州時期보다 뒤 시기인 제2차 폼적시기의 사를 먼저 살펴보았거니와 그 논문의 결론에서 “제2차 폼적시기의 동파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제1차 폼적시기보다 더 감상적이고 애상적인, 그리하여 보다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가 제1차 폼적시기보다 제2차 폼적시기에 더욱 감상에 빠졌던 것은 제1차 폼적시기와는 달리 초탈해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sup>14)</sup>라고 한 바 있다. 이제 영주·양

14)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제35집(2001년 5월), <第二次 貶謫時期的 東坡詞>, 144쪽.

주 시기의 동과사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경향이 영주·양주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中文抄錄

本論文是以蘇東坡在潁州和揚州做官時的詞作為對象進行分析的。我當初預料這段時期的東坡詞具有比以前的作品更清麗曠達的風格，但是分析的結果却得到了與此相反的結論。這段時期的東坡詞，就題材方面來說：人間味較少的‘自然詞’有五首，人間味較多的‘人情詞’有七首；就風格方面來說：婉約詞和清曠詞各占一半。

從前漸漸強起來的清曠風格到了這段時期頓挫變弱的原因可能如下。從來蘇東坡常常以為自己原來是天上的人，所以堅持‘乘風歸去’（蘇東坡〈水調歌頭〉語）的念頭。這樣的想法讓他一直努力超越現實世界過神仙式的生活，而且給他拿來了一定程度上的效果。不過到了這段時期，他對於這樣的努力也已經倦壞了。結果，他終於回返了他原來的面貌——一個渴望‘對床夜雨’的富有人間味的普普通通的人。

總之，從來的蘇東坡詞風是他積極努力的產物，這段時期的蘇東坡詞風才是自然而然的真面目。我們在此後的蘇東坡詞裏可能看到他‘多情多感仍多病’（蘇東坡〈采桑子〉語）的面貌。

### 參考書目

- 柳種睦, 《蘇軾詞研究》, 대구: 中文出版社, 1993  
柳種睦, 《팔방미인 蘇東坡》, 서울: 신서원, 2005  
蘇軾,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 王文誥,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 成都: 巴蜀書社, 1985  
李一冰, 《蘇東坡新傳》,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5  
曹樹銘, 《蘇東坡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朱祖謀, 《彊村叢書》, 臺北: 廣文書局, 1970  
鄒同慶·王宗堂,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韓國中國語文學會, 《中國文學》 제31집, 1999년 5월